

“결혼하지 않는다고 약속 해”: 『보스톤 사람들』에 나타난 여성 유대와 뒤틀린 결혼 서사

최유정

1883년에 쓴 편지에서 헨리 제임스(Henry James)는 『보스톤 사람들』(*The Bostonians*)에 “매우 미국적인 이야기”(a very American tale)를 담을 것이라고 말하며, 그 소재로 “여성들의 지위, 성에 대한 감성의 타락, 그들을 위한 시위”(the situation of women, the decline of the sentiment of sex, the agitation on their behalf)를 언급한다(*Bostonians* 439). 19세기 미국 보스톤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이던 여성 참정권 운동을 모델로 한 이 소설은 적잖은 여성들이 정치적 집단과 강연을 조직하고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변화 과정에 주목한다. 데이비스(Sara deSaussure Davis)는 1880년대에 제임스가 “가족적 삶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바깥세상’의 자유를 추구하는 여성들”(women who step beyond the concern of family life and who seek liberation in the “world outside” 586)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설명한다. 여성들이 가족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탈피하여 공적 영역을 향해가는 것이 여성운동의 흐름이었다면, 베레나(Verena Tarrant)가 여성주의에 관한 연설을 포기하고 남성과 결혼 계약을 맺기로 택하는 『보스톤 사람들』의 결말은 여러모로 아이러니하다. 뒤틀린 결혼 서사를 통해서 제임스는 참정권이라는 시민 영역의 평등뿐만 아니라 남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영역의 문제까지도 다루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바질(Basil Ransom)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베레나(Verena)가 “눈물을 흘리는”(in tears 435) 모습은 그녀가 맞이할 가부장적 억압을 상징한다. 갈등을 봉합하고 행복한 미래를 예견하는 방식의 결혼 서사 전통은 여성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던 보스톤 사회에서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된다. 제인 오스틴의 연애 소설에서 여주인공이 내적 성장과 맞물려서 결혼을 성취해낸다면, 제임스의 결혼 서사는 결혼을 통한 여성의 성장에 대해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에 대해서 카하니(Claire Kahane)는 『보스톤 사람들』의 마지막 장면을 “이성애적인 결혼 플롯에 대한 가장 전복적인 결말”(the most subversive ending to a heterosexual marriage plot 78)이라고 평가하며, 맥콜리(Kathleen McColley)도 제임스가 남녀 간의 결혼 계약 자체를 무화시키려는 목적으로 결혼 플롯을 이용한다는 특이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한다(151). 여

성들이 공적 영역에 진출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제임스는 결혼 제도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결혼 서사를 다시 쓰는 셈이다.

사실 『보스톤 사람들』에는 결혼 서사 혹은 결혼 제도로 포섭될 수 없지만 이와 유사한 관계가 또 등장한다. 베레나와 올리브(Olive Chancellor)의 동성 관계, 둘 사이의 우정과 사랑은 보스톤 사회를 사실적으로 재현하고자 한 제임스의 기획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두 숙녀의 관계는 뉴잉글랜드에서는 너무나도 흔한 여성 사이의 우정에 대한 연구가 될 것이”(The relation of the two girls should be a study of one of those friendships between women which are so common in New England; *Bostonians* 438)라는 그의 설명은 여성 사이의 우정이 여성운동에 대한 분석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암시해 준다. 페더만(Lillian Faderman)은 제임스가 여성 사이의 우정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스톤 결혼”(Boston marriage)이라는 현상으로 다시 풀어냄으로써 그 관계가 지닌 의미를 확장시킨다. 이성애적 결혼을 패러디하는 ‘보스톤 결혼’이라는 19세기의 용어를 다시 환기시키므로써 페더만은 여성들 간의 결합이 기존의 결혼과 다른 점들을 지적한다. 여성 간의 동성 관계는 사회 개선(social betterment), 여성적 가치(female values)라는 가치관을 공유했으며 대개는 페미니즘 운동과 함께 가는 관계였다(*Surpassing*, 190). 여성 간의 결합은 삶과 이상의 공존, 여성주의 이론의 현실적, 실천적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올리브, 베레나가 구현하는 여성 간의 동성애 관계는 이성애 관계 내의 문제점과 한계를 부각시키고 가시화한다.

이 글에서는 페이트먼(Carole Pateman)이 『성적 계약』(*The Sexual Contract*)에서 제공해주는 논의를 바탕으로 삼아서 『보스톤 사람들』에 나타난 이성애 관계의 문제점을 점검해보고, 그 대안으로서 올리브-베레나의 동성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결혼 계약의 권위가 패러디되고 비판되는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남녀의 이성애적 관계가 불평등하기 때문에 동등한 (결혼) 계약을 맺을 수 없다는 페이트먼의 성적 계약(sexual contract) 논의는 『보스톤 사람들』에 등장하는 개인과 자유에 대한 수사가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적임을 알려준다. 그녀는 “이성애 관계가 불가피하게 지배와 예속의 형식을 띠는 것이 아니다. 계약과 신분,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거부장적 대립항 안에서 자유로운 관계란 불가능하다”¹⁾고 말하며 이성애 관계 안에서 자유의 가능성이란 없다고 단언한다. 결혼 계약이 원초적으로 불평등하고, 결혼 서사가 불가피하게 실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면 작품 속에서 제시되는 동성애 관계에서 다른 가능성을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해진다.

1) Heterosexual relations do not inevitably take the form of mastery and subjection, but free relations are impossible within the patriarchal opposition between contract and status, masculinity and femininity. (187-88)

이성애적 결혼 관계와 동성에 관계의 대비는 이 소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페털리(Judith Fetterley)의 지적처럼 『보스턴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식은 곧 독자의 정치성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101). 트릴링(Lionel Trilling)으로 대표되는 1980년대 이전의 비평사가 동성애적인 올리브를 폄하하고 정상적이고 규범적인 결혼 플롯을 옹호한다면, 그 이후의 여성주의 읽기는 남성 중심적인 비평 사조의 규범성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한다. 1970년대 후반 페털리와 페더만은 올리브가 지닌 긍정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읽어내며, 소설이 결혼 서사의 규범성에 의혹을 제기한다고 해석한다.²⁾ 여성주의, 동성에 혐오에 대한 비평가의 정치적 입장이 『보스턴 사람들』에 대한 해석에 투영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70년대 후반 이후의 비평은 올리브와 베레나의 동성 관계, 올리브의 여성주의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해 왔다. 여기에서도 두 갈래의 흐름이 존재하는데 한 편으로는 여성 간의 동성 관계가 이성애 관계보다 더 우월하다는 주장(Fetterley, Faderman, McColley)과 두 관계가 사실상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주장(Petty, Scott)이 존재한다. 후자에 속하는 페티(Leslie Petty)는 올리브와 베레나의 관계가 이성애와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는 스콧의 해석에 동의하며, 그 유사성이 동성 관계의 실패 원인이라고 지적한다(391). 소설에서 올리브와 바질 사이의 동일성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 간의 동성 관계를 결혼 제도라는 권위에 속해 있는 남녀 관계와 동일시하는 것은 소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를 간과하는 것이다. 『보스턴 사람들』은 남녀 관계 혹은 이성애적 결혼 관계 속에서 여성의 위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올리브와 베레나의 관계는 이성애적인 결혼 계약과 결혼 서사에 대한 저항과 패러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1. 개인과 여성의 간극

소설에 나타난 동성 관계를 평가하는 작업은 주로 올리브라는 인물에 대한 평가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서술자의 냉소와 동정, 비난과 경외의 시선이 모두 관통하는 올리브는 소설에서 가장 복잡하고 심오한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페털리는 “『보스턴 사람들』은 결국 올리브 찬슬러에 대한 책이다”(The *Bostonians* is finally Olive Chancellor's book 118)라고 요약하며 제임스가 그녀에게 부여하는 비극성을 높게 평

2) 페털리는 결혼 제도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제임스가 소설에 부여했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비판이 곁들여 있다고 평가한다(Despite his fatalism James conveys the sense that there is something radically wrong with the way things are, that there is something grotesque about a system in which women's place is but a trivial "detail," 151).

가한다. 반면에 레슬리는 “올리브가 개인과 그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분리시키려고 한다. 대신에 그녀는 사람들을 관념으로 생각한다”(Olive consciously detaches her emotional responses from individuals; instead, she thinks of people as abstractions 382)고 지적하며 이러한 비인격적(impersonal) 태도가 그녀가 실패하는 이유라고 분석한다. 비슷한 입장을 보이는 데이비스도 올리브가 여성 점원들에 대한 낭만적 환상을 품을 때처럼 “하나의 전형”(a type)으로 행동할 때 이러한 조롱과 풍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한다(584).³⁾

올리브가 개인에게서 그 개인성을 제거하고 집단으로 바라보려는 성향이 강한 것이 사실이며, 이러한 태도가 서술자에 의해서 조롱되는 지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러나 올리브에게 혹은 여성주의 운동에 있어서 ‘개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개인**은 가부장적 범주다 ... 섹슈얼리티의 가부장적 구성, 그리고 성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성적인 재산을 소유하고 이에 접근할 권리를 의미한다 ... **개인**은 성적 재산인 여성의 몸을 사용하는 남성이다”(The ‘individual’ is a patriarchal category . . . The patriarchal construction of sexuality, what it means to be a sexual being, is to possess and to have access to sexual property . . . The ‘individual’ is a man who makes use of a woman’s body [sexual property] 184-85)라는 페이트먼의 분석은 더 이상 ‘개인’이 객관적, 중립적, 보편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개인 사이의 동등하고 공정한 계약이 사실상 여성이 배제된 남성들만의 것이라는 페이트먼의 통찰은 ‘개인’이라는 개념을 성차에 의해서 구조화된 것으로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올리브가 개인성을 부정하려는 노력은 개인을 성차로 구분된 정치적 집단으로 포섭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가장 대표적인 두 인물인 올리브와 바질의 대화는 개인성을 둘러싼 논쟁을 가시화한다. 여성을 개인으로 환원시키려는 바질의 언어와 여성을 하나의 집단으로 읽어내려는 올리브의 언어는 늘 충돌을 빚어낸다.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가를 안다면, 당신은 간섭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첼슬러 양이 랜섬에게 말했다.

“당신의 ‘우리’라는 말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당신의 그 즐거운 여성들 말입니까? 나는 올리브 양인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I don’t think you would interfere if you knew how little you understand us,’ Miss Chancellor said to Ransom.

3) 작품 속에서 개인과 집단, 단수와 복수의 대비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레슬리와 데이비스처럼 이는 올리브의 특이한 성격 탓으로 줄곧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이 대비가 여성주의 운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비평은 찾기 힘들었다.

‘Whom do you mean by “us”—your whole delightful sex? I don’t understand *you*, Miss Olive.’ (90, 필자 강조)

올리브는 개인을 개인으로 읽어내기를 저항하며 성차로 구분된 정치적 집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반면에 랜섬은 올리브가 상상하는 여성 집단을 “당신의 그 즐거운 여성들”로 풀어내며 조롱하고,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여성이 아닌 올리브 개인이라고 반박한다. 그는 성차로 구분된 집단(여성)을 사적인 개인으로 환원시키며 성차를 지워낸다. 비슷한 양상으로 바질은 “여성의 고통이 곧 인류 전체의 고통이”(The suffering of women is the suffering of all humanity 222)라고 주장하며 여성을 인류 전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여성들에게만 국한된 정치적 의미를 퇴색시킨다. 그는 여성이라는 범주를 사적인 개인으로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보편화된 인류로 확대시키는데, 어떤 방향으로든 바질은 개인의 성별에 정치성을 부여하지 않는다.

반면에 올리브는 개인을 성차로 구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남녀 차이에 개입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하고, 남성을 타자화하려는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과정이다. 트릴링은 『보스턴 사람들』에 등장하는 성의 혁명이 결국 “남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사람들이 되고 싶어 하는 존재의 자질에 대한 질문”(a question about what it means to be a man and what it means to be a woman—about the quality of being which people wish to have 97)을 제기한다고 해석한다.⁴⁾ 올리브는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 가장 고민하는 인물이며 이러한 모습은 그녀의 동일시/거리두기의 작업에서 가장 잘 구현된다. 올리브가 랜섬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곧 그가 남성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그녀에게는 “남성을 하나의 계급으로서 싫어한다는”(she hated men, as a class)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도덕적 자산”(a moral resource that she could always fall back upon)이 있었기에 이러한 분리 작업에 성공한다(19). 비슷하게 그녀가 헨리 버라지(Henry Burrage)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가 “매우 쾌활하고, 즐겁고, 친절하고, 사려 깊은”(so good-humoured, so amusing, so friendly and considerate 144)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매력을 느낀다. 결점을 찾기 힘든 사람을 대면한 올리브는

4) 올리브에 비해서 바질은 개인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유연하고 자유롭다. 그는 닥터 프랜스(Doctor Prance)를 소년 같다고 생각하며 남성에게 가까운 사람으로 평가한다(366). 또한, 바질은 올리브를 싸우는 여인(fighting woman 377)으로 묘사하며, 기사도 정신을 베풀 필요가 없는 여성, 즉 여성성이 없는 여성으로 평가한다. 반면 그에게 베레나는 여성성의 화신과도 같다. 이렇듯 성의 범주에 유연할 수 있는 것이 이 작품에서 남성이 갖는 특권이 아닐까 한다.

“왜 그녀가 그를 좋아해서는 안 되는지 더 나은 이유를 자신에게 납득시키”(make it tell her some better reason why she shouldn't like him 144)고자 하며 이러한 모습은 거리두기 과정이 상당히 인위적임을 의미한다. 개인적 호감이라는 본능을 억제하며 남성 일반에게 거리를 두는 올리브의 사고 과정은 서술자와 바질에 의해서 풍자되기 일췌이지만 그녀의 노력은 ‘개인’이라는 범주를 무비판적으로 보지 않기 위한 철저함이다.

올리브는 남성에게 거리두기를 시도하는 동시에 여성이라는 범주를 자신과 동일시하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은 개인으로 홀로 설 수 없기에 여성들 사이의 연대,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의 여성의 존재가 중요해진다. 올리브는 실생활 속에서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여성과의 연대를 만들어내고자 한다. 자신이 부유한 부르주아 계층이라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올리브는 대중들과 섞이기 위해서 개인용 전세마차(hackney-coach)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인 시내마차(streetcar)를 이용한다거나(19-20), 여성 점원들(shop-maidens)과 소통하고자 한다(31). 이러한 그녀의 치밀한 계획은 계급을 뛰어넘는 여성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 연대는 베레나라는 한 개인과의 관계 맺기, 둘의 애착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실현 가능한 것으로 비춰진다. 이름이 암시하듯이 세상을 멀리서 관조하는 맹목적인 버즈아이(Miss Birdseye)와 여성주의를 하나의 수익 사업(business 32)로 간주하는 파린더 부인(Mrs Farrinder)과 달리 베레나는 낮은 계급에서 훌륭하게 자라난 여성, 즉 “위대한 민주주의의 꽃”(a flower of the great Democracy 104)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올리브는 베레나의 아름다움과 낙천적인 성격, 엄청난 웅변술에 매혹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상징하는 “가난의 극한”(extremity of poverty 105)은 부르주아인 올리브를 낮은 계급의 여성들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한다. 올리브는 베레나라는 한 개인을 통해서 전 역사를 아우르는 여성의 불행을 상상할 수 있게 되며, 그녀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여성주의의 모습을 실현시킬 수 있게 된다.

여성이라는 범주를 만들어내는 올리브의 기획에서 역사 교육은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올리브와 베레나는 “함께 많은 양의 역사를 읽었으며”(read a great deal of history together 168),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모든 괴롭힘 당하는 부인들, 시달리는 어머니들, 모욕당하고 버려진 처녀들”(All the bullied wives, the stricken mothers, the dishonoured, deserted maidens)의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 고통을 자신의 몸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한다(174-75). 이러한 역사화 작업을 통해서 여성의 삶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이미지 속에 포섭된다. 역사화를 통해서 올리브와 베레나는 모든 여성의 삶을 자신 속으로 끌어들이고 동일시할 수 있게 된다. 그녀는 베레나에게 남성을 가해자이자 “여성들에게 엄청난 빛을 지고 있는”(so much

in the debt of the opposite sex 132) 채무자로 볼 것과 그 반대급부로 여성의 고통과 억압에 항상 공감할 것을 베레나에게 주문한다. 올리브는 파든 씨(Mr. Pardon)와 하버드 학생들처럼 여성주의 운동에 엄청난 공감을 보여주는 남성들마저도 진정으로 여성에게 공감할 수 없다며 선을 긋는다(130). 올리브는 생물학적 성에 따라서 타인을 분리하거나 동일시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부자연스럽게 비춰지기도 하지만 개인을 성차화하고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엄청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2. 연애와 결혼 서사의 이중성

여성주의 운동에서 남성을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바라보고 거리를 두는 작업이 중요해지는 반면에, 개인이 지닌 고유성이 부각되는 연애의 경험은 남녀가 서로 가까워지고 공감하는 정반대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애와 결혼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가부장적 관습 안으로 포섭되는 가장 확실한 과정이기도 하다. “올리브 첼슬리의 존재 자체가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의미했다. 셸리가 서정 시인이고, 8월이 무더운 것처럼 그녀는 독신녀였다”(Olive Chancellor was unmarried by every implication of her being. She was a spinster as Shelley was a lyric poet, or as the month of August is sultry 15)는 서술자의 묘사처럼 올리브는 연애와 결혼 서사에 대한 저항을 온 몸으로 실현하며 자신의 몸이 가부장적 언어로 해석되기를 거부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올리브는 아름답고 사교적인 베레나가 남성과 사랑에 빠질까봐 두려워한다. 베레나가 하버드 대학생들과 파든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을 보자 올리브는 “너의 사명은 너 자신을 개인을 위한 오락거리로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일이야”(Your mission is not to exhibit yourself as a pastime for individuals, but to touch the heart of communities, of nations 124)라고 단호하게 말하며 베레나가 개인적인 연애의 맥락이 아니라 공동체나 국가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 속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남녀 간의 이성애적 사랑은 여성이 남성에게 가져야 하는 비판적인 거리를 지워내고, 여성의 몸을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인 가부장적 맥락 속으로 포섭시키기 때문이다. “키스로 네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을 즐기는紳사들이 수두룩하단다 ... 만약에 그들 중 하나라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설득시킨다면 그건 엄청난 일일 거야.”(There are gentlemen in plenty who would be glad to stop your mouth by kissing you! . . . it will be a grand thing for one of them if he can persuade you that he loves you 130)라는 올리브의 걱정에는 남녀의 사랑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담겨 있다. 달변가인 베레나의 입에 키스함으로써 말할 수 없게 만드는 남성의 이미지는 연애 서사가 담고 있는 이중성을 보여준다.

바질과 베레나의 첫 만남은 두 사람의 관계가 연애 서사로 진행될 것임을 예견하는 복선의 역할을 한다. 바질은 버즈아이의 집에서 베레나를 보자마자 그녀가 매력적이고 (charming) 매우 예쁘다(pretty)고 느끼며 여성의 아름다운 육체, 그 섹슈얼리티에 매료된다. 그는 여성주의에 관한 연설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베레나에게 다가가서 “내가 남자인 게 부끄럽네요. 하지만 난 남자이고 그걸 피할 순 없지요 … 당신은 개별적인 남성도 피하십니까?”(I am ashamed of being a man; but I am, and I can't help it . . . Do you flee before the individual male?)라는 저돌적 질문을 던지고, 그녀는 “오, 아니에요. 개인은 좋아하지요!”(Oh, no; I like the individual!)라고 대답한다(84). 올리브와 달리 베레나는 남성을 거리를 두어야 할 집단으로 보지 못하며 정치적 의미가 지워진 개인으로 보는데 익숙하다. 쉽게 만족하고 쉽게 즐거움을 느끼는 베레나는 유쾌하고 잘생긴 남부 출신 바질에게 곧 매력을 느낀다. 바질이 여성주의 진영의 논리를 무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인 ‘개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베레나의 모습은 그녀가 그에게 곧 유혹되고 설득될 것임을 암시한다.

남성을 타자화, 집단화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올리브가 강조한 여성주의 교육이었다고 한다면 바질은 사적이고 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친밀함을 강조한다. 바질이 환기시키는 개인성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베레나가 뉴욕에서 가졌던 연설에 대해서 바질은 “나는 당신의 생각을 듣지 않아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I don't listen to your ideas; I listen to your voice 320)라고 말하며 연설가의 공적 역할을 개인적인 육체성으로 환원시킨다. 목소리나 아름다운 외모로 상징되는 베레나의 육체는 추상적 관념 속에 포함될 수 없는 가장 사적인 섹슈얼리티의 영역이다. 바질은 “그녀에게 정말로 키스를 시도하는 것처럼”(as if he had really attempted to kiss her 320) 보이는 몸동작을 통해서, 혹은 그녀를 뻗히 쳐다보는 눈길을 통해서 베레나에게 그녀가 지닌 섹슈얼리티를 인식하게 만든다. 바질이 베레나에게 “가장 가깝고 고정된”(ever so close and fixed) 눈길을 보내자 그녀의 얼굴은 “홍조를 띠기 시작했다”(beginning to blush 327)으며, “그녀는 이제 개인에 대한 생각을 참아내기가 힘들었다. 그녀는 그를 떼어내서 일반적인 것 속으로 끌어넣기를 원했다”(she was now unable to endure the contemplation of an individual. She wished to detach him, to lead him off again into the general 327)고 묘사된다. 수많은 연설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한 집단으로 보는 것에 익숙해진 베레나는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는 바질의 시선에서 혼란을 느낀다. 그의 시선을 통해서 둘의 관계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것이 아닌 사적인 연애의 관계로 재정의된다.

베레나와 바질이 나란히 산책을 즐기는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연애의 공간이자, 자유로움에 대한 갈망을 부추기는 장소이다. 바로 전 날 베레나가 버라지(Burrage)와 함

께 마차를 타고 높은 곳에서 센트럴 파크의 풍경을 관망했다면, 이제는 바질과 함께 같은 장소를 “거닐고 … 천천히 멈췄다가 느긋이 앉아 있기도 했으며, 전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동물들을 바라보기도 하면서”(to wander . . . slowly stopping, lounging, looking at the animals as she had seen the people do the day before 310) 공원이 주는 자유로움을 즐긴다. 올리브 몰래 집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베레나에게 바질은 “당신이 열 살짜리 어린 소녀이고 올리브는 당신의 가정교사입니까? 당신은 자유도 없어요? 그녀가 당신을 항상 감시하고 추궁합니까?(Are you a little girl of ten and she your governess? Haven't you any liberty at all, and is she always watching you and holding you to an account? 312)라고 물으며 자신과 함께 센트럴 파크로 떠날 것을 재촉한다. 바질은 자신과의 사적인 연애가 베레나의 자유가 실천되는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거리, 집, 강, 다리 등의 풍경은 4월이라는 “한 해의 가장 매력적인 순간이 주는 모든 향기와 싱그러움”(all the fragrance and freshness of the most charming moment of the year 313)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아름다운 도시 정경 속에서 베레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동안에 자신을 훌륭하게 보살펴주는 멋진 남성과 함께 위대한 도시를 배회하는 기분을 만끽”(enjoyed the sense of wandering in the great city with a remarkable young man who would take beautiful care of her, while no one else in the world knew where she was 313)하며 자유로움을 온몸으로 느낀다.

바질은 베레나에게 “당신의 사랑스러움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유에 대해서도 당당해 지세요”(standing forth in your freedom as well as in your loveliness 326)라고 주문하며 그녀가 자유로운 개인임을 재차 강조한다. 바질은 개인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자유주의적 수사를 동원하여 베레나를 연애 서사 속으로 유혹한다. 남성의 시선과 언어를 통해서 베레나는 “어쨌든 지금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바로 그녀의 진정한 자아였다”(at any rate, it was her real self that was there with him now 326)고 느끼며, 이성애적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자유롭고 자율적인 진짜 주체로 인지한다. 스콧(Anthony Scott)은 바질과 베레나가 서로 산책을 즐기는 캠브리지와 센트럴 파크 장면에서 “처음으로 베레나의 관점에서 사건이 서술된다. 이것은 그녀의 내면성, 결과적으로 그녀가 자율적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심화시킨다”(events are narrated for the first time from Verena's point of view. This deepens the sense of her interiority, and consequently the sense that she possesses an autonomous will 62)고 분석하며 연애의 과정에서 자유, 개인성, 주체성과 같은 인식이 생겨난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토마스(Brook Thomas)도 베레나가 바질과의 연애를 통해서 올리브가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라는 사적 영역을 만들게 되며, 이러한 프라이버시를 통해서 개인성이 형

성된다고 주장한다(734).

평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베레나가 바질과의 만남을 통해서 의식이 성장하고 내면성이 깊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연애·결혼 서사에서 여성의 성장은 상당히 이중적이다. 연애 경험을 통해서 베레나가 개인성을 성취했다는 지점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그 개인성이 텍스트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받는지, 특히 바질의 언어에 주목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바질은 여성이 “공적이고 시민적 효용에서 보자면 전적으로 완벽하게 유약하고 이루어지지. 그러나 가족의 삶과 가정의 애정에 있어서는, 사적이고 개인적 영역에서는 다른 문제예요”(For public, civic uses, absolutely—perfectly weak and second-rate . . . But privately, personally, it's another affair. In the realm of family life and the domestic affections— 327)라고 말하며 결국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사적 영역에 국한된 비자율적 주체임을 증명한다. 베레나 개인의 성장과 자유가 이성애적인 연애·결혼 서사 속에 들어오는 순간, 성장과 자유의 의미는 사적 종속과 반자유로 바뀌어버린다. 호크만(Barbara Hockman)이 지적한 바대로 올리브와 바질 중에 누가 더 낫다고 평가하는 일은 힘들지만, 바질을 행복한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의 여성혐오를 무시하는 위험성을 감수해야만 한다(275).

작품에서 바질은 연애와 결혼 계약을 통해서 베레나가 개인성과 자율성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개인’, ‘자유’, ‘선택’과 같이 중립적으로 보이는 단어들이 여성에게 적용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된다. 개인이 계약을 맺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고 확인할 수 있다는 믿음은 자유주의 이론이 만들어낸 환상이자 신화이기도 하다. 페이트먼이 자유주의 이론을 주창하는 밀(J. S. Mill)의 논의가 사실상 남녀의 공/사 분리에 의존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듯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설파하는 자유주의는 역설적으로 남녀의 불평등을 공고히 하는 모순을 지니고 있다(163).⁵⁾ 마찬가지로 『보스턴 사람들』의 결혼 서사는 여성인 베레나가 결혼 계약을 통해서 자율적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는 듯 보이지만 바질의 언어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듯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여성에게 적용될 경우에 그 자유란 결국 사적 영역에 국한되는 종속과 동일하다. 베레나가 이성애적 사랑을 통해서 올리브와 여성주의 진영으로부터 탈피하는 과정은 일종의 성장으로 그려지지만, 그것이 바질과의 결혼 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사

5) 밀은 『여성의 종속』에서 “여성의 자연스러운 임무가 부인과 어머니가 되는 것”(the natural vocation of a woman is that of a wife and mother 161)이라는 관습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남성이 수입을 벌고 부인이 가정의 지출을 감독하는 것”(the man earns the income and the wife superintends the domestic expenditure)이 “두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노동 분업”(the most suitable division of labour between the two persons 184)이라고 말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페이트먼은 밀이 주장하는 남녀평등이 결국 여성을 사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논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모순을 비판한다.

적 영역에 국한된 반쪽짜리 성장을 제시할 뿐이다.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 서사란 성장과 타락, 자율적 선택과 복종이 맞물린 이중성임이 드러난다.

바질에게 사울 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적어도 결혼 계약 내의 여성의 위치, 결혼 서사가 여성에게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해준다는 사실이다. 그는 결혼의 종속적 질서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는 부인으로서 베레나가 맞이할 운명에 대해서 어떠한 환상도 허락하지 않”(He allowed her, certainly, no illusion on the subject of the fate she would meet as his wife 371)는 솔직함을 보여준다. 그는 여성에게 “공적인 자리”(No place in public)란 없으며, “나의 계획은 당신을 집에 계속 있게 하고 거기서 당신과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My plan is to keep you at home and have a better time with you there than ever)라고 말하며 가정의 영역에만 머물러야 하는 아내의 종속적 지위에 대해서 알려준다(323). 베레나가 바질 “자신에게 매력적인 것과 전 세계에 매력적인 것”(Charming to me, charming to all the world 375) 중에서 “전자가 오천 배는 더 나은 것이”(It will be about five thousand times greater than it is now 376)라는 바질의 설득은 여성이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국한되어 있어야 마땅하다는 가부장적 논리를 그대로 답습한다. 라이언(Susan M. Ryan)은 “랜섬이 결국 베레나를 페미니즘으로부터 구출해내지만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과 가정적 가치들로 후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Ransom rescues Verena, after all, from feminism, which would seem to accord with that retreat into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family values 270)고 지적하면서 여성의 자율적 주체되기 과정이 결국 후퇴와 종속으로 귀결됨을 짚어낸다.

3. 결혼 계약에 대한 패러디로서의 동성에 관계

자발적인 동의/선택이 복종으로 수렴되는 것이 결혼계약의 이중성이라면 올리브와 베레나의 동성 관계는 이성애적 연애/결혼 서사와는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올리브와 베레나의 동성 관계를 베레나와 바질의 불평등한 이성 관계에 대립되는 것, 더 나아가서 대안적이거나 더 나은 관계로 보려는 비평적 시도는 계속되어 왔다. 페더만(Faderman)은 베레나가 바질보다는 올리브와 있을 때 더 성장했다고 주장하며 (“Female”, 330), 페털리는 올리브가 바질과 다르게 “따스하고 사랑해주는”(warm and loving 147) 제스처를 취한다고 분석한다.⁶⁾ 맥콜리(Kathleen McColley)는 두 여

6) 페털리는 망토(cloak)를 베레나에게 씌어주는 동일한 장면이 올리브, 바질에게서 모두 나타난다는 디테일을 포착하고, 두 사람의 행위가 다른 방식, 다른 효과를 통해서 묘사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올리브가 따스한 느낌을 주며 망토를 씌어준다면, 바질은 소유욕이 강한(posses-

성 인물의 동성애적 연합(homoerotic alliance)이 자유로운 대화와 애정어린 침묵으로 강화되는 과정을 살피고, 이들의 여성성이 가부장적인 바질(Basil Ransom)의 담론보다 더 우선시됨을 밝힌다.⁷⁾

“남성이 여성과 맺는 관계에서 허용되는 것과 여성이 여성과 관계 맺을 때 허용되는 것 사이의 간극은 명백하다”(The disparity between what is acceptable in men’s relation to women and what is acceptable in women’s relation to women is unmistakable 133)는 페틸리의 주장은 애초에 동성 관계와 이성 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올리브는 그들 관계의 합법성을 믿지 않기 때문이”(she does not herself believe in the legitimacy of their relationship 134)며, 동성 사이의 관계는 이성 사이에 존재하는 결혼 계약의 법적·사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바질이 베레나에게 내일 아침에 “우린 결혼하게 될 거예요”(we shall be married 431)라고 말하며 결혼 서사의 실현을 예고한다면, 여성주의자인 올리브는 베레나에게 다른 남성과 “결혼하지 않는다고 약속해!”(‘Promise me not to marry!’ 128)라고 말하며 결혼 서사의 흐름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파든, 버라지, 바질이 자신의 재력과 능력을 과시하며 당당하게 베레나에게 청혼할 수 있다면, 올리브는 결혼 약속을 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올리브의 언어는 결혼을 약속하지 않겠다는 약속, 즉 부정적 약속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그녀가 베레나에게 건네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는 말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명확한 대화로조차 재현되지 않는다. 파든과 타란트 부인(Mrs. Tarrant)의 “너희들은 함께 얼어 죽을 거야!”(you’ll free together)라는 말들 속에 파묻힌 채, 이 고백은 “낮은”(low) 소리로 울려 퍼지는 “마지막 다섯 단어”(five last words)로만 묘사된다(128). 갑작스러운 고백을 듣게 된 베레나가 그 말의 의미를 마음속으로 곱씹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재현될 뿐이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약속해’—그 말은 그녀의 놀란 마음속에서 메아리치고 반복되었다 ... 그러나 그녀의 친구가 말했던 방식대로 발화된 그 생각은 새로운 엄숙함을 지니고 있었다. 빠르고 강렬했던 그 말은 결과적으로 그녀를 떨리고 조급하

sive)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147).

- 7) 그 외에 동성에 관련 비평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캐슬(Terry Castle)은 올리브(Olive)를 비난해온 그간의 비평사를 “동성에 혐오적인 횡설수설”(a kind of homophobic double-talk 152)이라고 비판하며, 올리브에게 영미 문학사에 등장한 “첫 레즈비언 비극 주인공”(the first lesbian tragic heroine 178)이라는 호칭을 부여한다. 캐슬과 마찬가지로 『보스턴 사람들』을 레즈비언 서사로 읽어내는 데이비드(David Van Leer)는 이성애적 관계가 상정하는 “규범성의 부적절함”(the inadequacy of normality 108)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소설의 가장 큰 성취로 꼽는다.

게 만들었다. 마치 그녀는 갑작스럽게 미래를 살짝 보게 된 것만 같았다. 올리브가 원하는 운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꽤 끔찍했다.

‘Promise me not to marry!’—that was what echoed in her startled mind, and repeated itself there . . . But the idea, uttered as her friend had uttered it, had a new solemnity, and the effect of that quick, violent colloquy was to make her nervous and impatient, as if she had had a sudden glimpse of futurity. That was rather awful, even if it represented the fate one would like. (128)

‘결혼하지 않는다고 약속해!’라는 올리브의 갑작스런 고백은 다른 남성들의 청혼보다도 베레나의 마음에 더 큰 파문을 일으킨다. 이 다섯 단어에 들어있는 의미의 심오함, 평소에 짐작하고 있던 바가 발화될 때 느끼는 당혹감, 말을 통해 엿보게 되는 미래의 운명이 베레나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친다. 서술자는 올리브가 베레나에게 직접 말하는 순간을 묘사하지 않고, 올리브가 말한 다섯 단어가 무엇인지 독자들에게 직접 알려주기까지 시간을 끌면서, 두 여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고백 순간의 애절함을 부각시킨다.

고백이 있고 나서 처음 두 사람이 재회했을 때 올리브는 결혼하지 말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철회한다. “나는 너의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않아. 나는 너의 자신감만을, 거기서 우리나라오는 것만을 원할 뿐이야. 나는 진심을 다해서 네가 결혼하지 않기를 빌어. 그렇지만 네가 만약 결혼하지 않는다면 그건 내게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어야해”(I don’t want your signature; I only want your confidence--only what springs from that. I hope with all my soul that you won’t marry; but if you don’t it must not be because you have promised me 130)라는 올리브의 변심은 동성 관계에 대한 많은 함의를 품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스콧은 올리브가 그들의 관계를 “계약적 명령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것”(not by contractual fiat but by choice 61)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올리브가 부모님께 돈을 지불함으로써 베레나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동성 관계는 결혼 제도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한다. 스콧에 따르면, 베레나와 올리브의 관계도 “권력의 비대칭성, 강한 소유욕, 동의로 가장한 강제”(its possessiveness, its use of coercion disguised as consent)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관습적인 (결혼의) 이성애와 구조적으로 유사”(its structural resemblance to conventional [married] heterosexuality)하다는 것이다(60).⁸⁾

8) 스콧은 젠더가 고정된 정체성이 아니라면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아주 흥미로운 논점을 제시한다. 따라서 작품의 동성 관계에서 올리브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남성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성애와 동일하다는 것이다(60). 관계 속에서 성차가 결정된다는 스콧의 통찰에도 일리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올리브 베레나의 동성 관계를 베레나와 바질의 이성 관계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스콧의 지적대로 올리브의 약속 철회가 자발적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동시에 구속과 복종을 요구하는 결혼 계약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올리브가 베레나를 구속하는 방식은 랜섬이 베레나를 가부장적 사적 영역 속에 국한시키는 양상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토머스는 이성애적 관계를 포기하라는 올리브의 약속이 결혼 계약의 언어와 명백하게 다르며, 이성애적 “결혼 계약을 통해서 구성되는 위계적 신분”(the hierarchical status constructed by the marriage contract 731)이 동성 관계 속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의 지적은 두 가지 점을 시사해준다. 첫째로는 올리브가 결혼하지 말아달라는 부정적 표현으로 자신의 애정을 표현한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동성 관계가 결혼 계약이 지니고 있는 구속력과 종속적 지위를 결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동성 관계는 이성애적 결혼 계약과 본질적으로 다르게 구조화되어 있으며, 올리브의 언어는 이러한 다름을 잘 보여준다. 그녀의 고뇌는 자신의 진심어린 애정을 어떠한 용어와 방식으로 표현할지 확신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동성 내의 관계는 법적, 사회적 구속력을 갖는 결혼 계약의 범주 안에 포섭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혼 계약에서 일어나는 언어의 수행적 힘이 작동하지 않는다. 오스틴(J. L. Austin)은 언어가 수행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발화되는 상황이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적합해야만 한다”(it is always necessary that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words are uttered should be in some way, or ways, appropriate 8)고 주장하고, 그 예로 결혼 계약의 상황을 든다. 올리브가 베레나에게 약속을 강요하면서도 다시 거두어들이는 장면은 동성 간의 약속이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 그 무력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동성애/이성애 관계 사이의 차이점은 마미온(Marmion)에서 베레나와 바질의 공개적인 연애 행각을 올리브가 막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또렷하게 드러난다. 바질의 유혹이 쉽게 베레나를 연애 서사 속으로 끌어들이었다면, 올리브는 그렇게 쉽게 그녀를 자신과의 관계 속으로 묶어둘 수가 없다. 페털리는 “법적, 도덕적, 심리적 승인이 없기 때문에 올리브는 베레나와의 관계를 지켜내지 못한다”(Olive cannot secure her relationship with Verena, because there is no legal, moral, or psychological sanction for it 133)는 점을 짚어내며, “올리브가 말하듯이 랜섬과의 대결은 평등하지 않다”(As Olive says, a contest with Mr. Ransom is not equal 130)는 중요한 지점을 지적한다. 법적, 도덕적, 심리적 승인이 없는 동성 관계에서 좌절을 맞본 올리브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베레나의 “영원한 순결 서약”(the vow of eternal maidenhood 366)을 철회했던 지난 선택을 잠시 후회하기도 한다. 그러나 곧 그러한 약속을 통한 발목잡기는 애정관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만약에 그녀가 “안 돼, 난 널 보낼 수가 없어. 넌 엄숙한 약속을 맺었으니깐 안 돼!”라고 말할 힘이 있었더라면 베레나는 그 명령에 굴복하고 그녀와 머물렀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녀가 지닌 영혼의 마법이, 그들 우정의 달콤함이, 그들이 해온 작업의 효력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She believed that if it were in her power to say, ‘No, I won’t let you off; I have your solemn word, and I won’t!’ Verena would bow to that decree and remain with her; but the magic would have passed out of her spirit for ever, the sweetness out of their friendship, the efficacy out of their work. (367)

올리브가 ‘엄숙한 약속’을 강요하지 않은 이유는 동성 관계를 한 번 맺은 약속이 영원히 지속되는 가부장제의 결혼 구조와 차별화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결혼 계약이 여성에게 자유의 제약을 가한다면, 올리브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베레나에게 부여하는 셈이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의 애정이 지속하는 한에서, 서로 공유하는 여성주의의 이상이 유지되는 한에서 유효하다. 이러한 언어적, 사회적 무력감 속에서 올리브는 가부장제의 결혼 계약이 갖는 구속력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성애적 관계에 저항한다. 약속을 맺으면 관계의 달콤함(sweetness)이 사라질 것이라는 올리브의 말은 결혼 계약에 대한 비판이자 패러디로 읽힌다. 버틀러(Judith Butler)는 결혼 계약의 언어가 주체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수행성을 뚫으면, 퀴어의 주체는 결혼 의식의 “변형”(deformation 19)을 통해서, 권위 부여가 아니라 “수치스럽게 만들기”(shaming)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본다. 기존의 관습이 약간 뒤틀린, 비딱한 방식으로 재현될 때 기존 제도에 대한 비틀기, 조롱, 비판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계약/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하기 때문에 지키는 신뢰에 바탕을 둔 올리브와 베레나의 관계는 평생의 헌신과 구속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결혼 계약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다.

마미온의 해변에서 베레나와 랜섬의 마지막 밀회(tryst)가 있는 후 불이 꺼진 집에서 베레나와 올리브가 함께 맞이하는 침묵의 시간이 수치심(shame)이라는 지배적 정서로 표현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398). 버틀러가 수치심이라는 정서를 통해서 기존의 이성애 중심 제도를 비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된다고 주장한 것처럼 베레나와 올리브가 느끼는 수치심은 그들의 운명이 서로 갈라지게 만드는 규범적 삶의 방식에 대한 비판과 저항으로 읽어낼 수 있다. 그들의 저항은 언어로 재현될 수 없는 침묵과 시각적으로도 나타나지 않는 어둠을 통해서 역설적으로 드러난다. 특히 올리브의 수치심은 자기 자신에게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고자 했던 노력과도 결부된다. 그녀는 베레나의 배신을 통해서 “어찌하여 여성이 태초부터 남성의 이기심과 탐욕의 장난감이 되어왔는지”(how women had from the beginning of time been the sport of men’s selfishness and avidity 393-94)를 깨닫게 되며, “왜 그녀가 결국에는 구원받고 싶어 하지

도 않는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포기해야하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 (Did she ask herself why she should give up her life to save a sex which, after all, didn't wish to be saved 395)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그녀가 느끼는 환멸은 자기 자신을 다른 여성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의 문제, 남성에게 종속된 것으로만 존재하는 여성성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내포한다. 스콧은 올리브가 바질처럼 베레나를 소유하고자하기 때문에 작품에서 사실상 (셀라 타란트, 바질과 같이) 남성의 위치에 있다고 해석하지만(62-63), 마미온과 음악당 장면에서는 오히려 올리브가 결국 베레나를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남성의 위치에 두기 보다는 반대로 남성이 아닌 위치에 주목하게 만든다. 그녀가 사랑하는 올리브를 놓아주게 되는 것도 결국 그녀가 합법적으로 여성을 소유할 수 있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올리브-베레나-바질의 삼각관계가 진전되면서 소설은 결혼제도 속의 여성 억압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랑 관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급진적 질문을 던진다. ‘여성이 주체가 되는 것이 가능한가?’, ‘여성은 결국 남성에게 종속된 범주일 뿐인 것인가?’와 같은 여성성에 대한 원초적 의문들은 바로 올리브가 아직도 모든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은 19세기 미국사회에게 가하는 비판이다.

소설의 결말부에서 바질의 세계관은 점점 더 경직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농담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바질은 음악당에서 베레나를 소유하려는 욕심을 갖게 되면서 뻗뻗하고 고집스럽고 폭력적인 남성으로 변모한다. 그는 여러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베레나를 음악당에서 끌고 나오려는 고집을 꺾지 않으며, “무력으로 그녀를 떼어내려”(wrenched her away 434) 하는 잔인함을 보여준다. 반면에 올리브는 “내가 뭐든지 다 할게요—비참해지고, 천해지고 굴욕을 당할게요!”(I'll do anything—I'll be abject—I'll be vile—I'll go down in the dust 429)라고 바질에게 매달리며 지금까지 지켜왔던 자존심을 포기하고, 중국에는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된 양 강연단에 올라서게 된다. 강연 예정자이던 베레나가 뛰쳐나가버린 무대 위로 올리브가 모습을 드러내자, 강연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침묵은 경의로 가득한”(the hush was respectful 434), 우호적인 분위기를 내비친다. “이것이 베레나가 흘리게 될 마지막 눈물은 아니었다”(these were not the last she was destined to shed 435)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베레나의 불행한 결혼 생활, 결혼 계약의 불평등한 구조를 상징한다면, 결말에서 강연단에 선 올리브의 모습에선 가장 고뇌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인물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이 주어질 것만 같다.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페이트먼의 『성적 계약』의 논의에 바탕을 두어 『보스톤 사람들』에 등장하는 개인과 자유에 대한 수사가 여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적이며, 바질이 제시하는 결혼 계약 또한 여성을 사적 영역에 국한시킨다는 점에서 불평등하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지배와 종속으로 구조화된 이성애 관계에서 탈피한 베레나와 올리브의 동성애 관계에 주목함으로써 사회적 승인과 법적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성적 구속과 제약에서 자유로운 동성애 관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제임스는 이 작품에서 여성 간의 유대를 묘사함으로써 결혼 계약을 패러디하고 이에 저항하는 지점들을 창조해냈으며, 이러한 작업은 결국 여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여성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던 19세기 미국 사회에 던지고 있는 듯하다.

참고문헌

-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Eds. J. O. Urmson and Marina Sbisa. Cambridge: Harvard UP, 1975.
- Butler, Judith. “Critically Queer.” *The Routledge Queer Studies Reader*. Eds. Donald E. Hall et al. London: Routledge, 2013. 18-31.
- Castle, Terry. *The Apparitional Lesbian*. New York: Columbia UP, 1993.
- Davis, Sara deSaussure. “Feminist Sources in *The Bostonians*.” *American Literature* 50 (1979): 570-87.
- Faderman, Lillian. “Female Same-Sex Relationships in Novels by Longfellow, Holmes, and James.” *The New England Quarterly* 51.3 (1978): 309-32.
- _____. *Surpassing the Love of Men: Romantic Friendship and Love Between Women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 New York: Quill, 1998.
- Fetterley, Judith. *The Resisting Reader: A Feminist Approach to American Fiction*. Bloomington: Indiana UP, 1978.
- Hockman, Barbara. “Reading Historically/Reading Selectively: *The Bostonians* in the Century, 1885-1886.” *The Henry James Review* 34.3 (2013): 270-78.
- James, Henry. *The Bostonians*. Oxford: Oxford UP, 2009.
- Kahane, Claire. *Passions of the Voice: Hysteria, Narrative and the Figure of the Speaking Woman, 1850-1915*. Baltimore: Johns Hopkins UP, 1995.

- McColley, Kathleen. "Claiming Center Stage: Speaking Out for Homoerotic Empowerment in *The Bostonians*." *The Henry James Review* 21.2 (2000): 151-69.
- Mill, John Stuart. *On Liberty and The Subjection of Women*. London: Penguin, 2006.
- Pateman, Carole. *The Sexual Contract*. Stanford: Stanford UP, 1988.
- Petty, Leslie. "The Political is Personal: The Feminist Lesson of Henry James's *The Bostonians*." *Women's Studies* 34 (2005): 377-403.
- Ryan, Susan M. "*The Bostonians* and the Civil War." *The Henry James Review* 26.3 (2005): 265-72.
- Scott, Anthony. "Basil, Olive, and Verena: *The Bostonians* and the Problem of Politics." *Arizona Quarterly* 49.1 (1993): 49-72.
- Thomas, Brook. "The Construction of Privacy in and Around *The Bostonians*." *American Literature* 64.4 (1992): 719-47.
- Trilling, Lionel. *The Opposing Self*. New York: Harcourt, 1978.
- Van Leer, David. "A World of Female Friendship: *The Bostonians*." *Henry James and Homo-Erotic Desire*. Ed. John Bradley. New York: St. Martin's, 1999. 93-109.

ABSTRACT

Female Bonding and the Twisted Marriage Plot in Henry James' *The Bostonians*

Yoojung Choi

This paper starts from the question why *The Bostonians*, a novel on women's suffrage in nineteenth-century Boston, mainly tackles the love triangle surrounding Verena, which manifests the conflict between the heterosexual marriage and the female same-sex relationship. By drawing on Carole Pateman's concept of the individual as a patriarchal category, this study examines how female bonding between Olive and Verena serves to criticize the heteronormative narrative plot of courtship and marriage. Basil, who persuades Verena to give up her job as a feminist speaker and marry him, exploits the liberalist rhetoric of individual and freedom, which eventually turns out to be based on gender inequality; his speech actually reveals the marital restriction that reduces women to the domestic sphere. In contrast with Basil's marriage contract as a realization of individuality, Olive radically questions the authority of the contract that imposes a lifelong commitment, by requiring the relationship with Olive to be based on love, not coercion. This twist on the marriage contract also prefigures the queer subjectivity of Judith Butler's theory. As Butler indicates "shaming" as a way to step aside from the socially sanctioned convention, the shame Verena and Olive feel together likewise provides the criticism and resistance to the normative heterosexuality that eventually splits the female bond. In *The Bostonians*, James opens up the possibilities wherein the marriage contract is criticized and parodied by homosexual relations, thereby raising the essential question about what it means to become a woman in nineteenth-century America at the dawn of the feminist movement.

Key Words Henry James, *The Bostonians*, female bonding, queer subjectivity, marriage contract